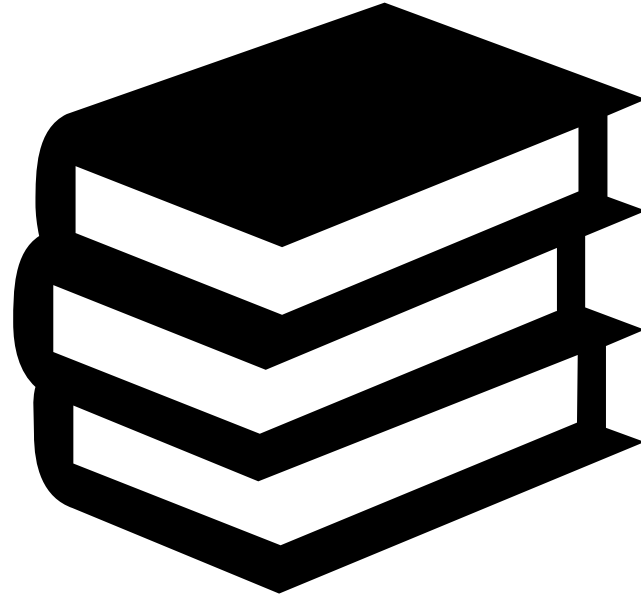


독서동아리, 어디까지 들어봤니?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간사 서영주



사람



책



공간

독서동아리의 3요소

사람을
어떻게
모을 수
있나요?

있다(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고향으로 온 청년 2명

피난처

도서관 및 터미널
손글씨 대자보

아이디어

2018년 신년 계획

진짜 '나' 에게로 회귀

사람을 어떻게 모을 수 있나요?

JJ601 (서울, 그때그때 다름)

읽기만!
다른 것은 공부나
부담스러운 노동이 될 수 있어

이제 책을 좀 읽어보자!

1960~61년
초등학교 동창들

부담 없이 운영
읽고 싶은 책
또는 돌려보기

새로운 시도
온라인 독서모임

대화의 변화

사람을
어떻게
모을 수
있나요?

짜릿한 탈출 새벽독토 (대전)

아이들의 엄마이자 독서가

엄마의 삶을 존중하고, 함께 강의를 들어요

조기축구회 VS 독서동아리

한 가정의 아내나 엄마로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

다양한 환경에
노출해 독서를
일상화 하는 것이 중요

대하소설에 도전!

1년 독서 목록 저절로 완성

<태백산맥> 완독하고 벌교로 여행을 떠난다면?

책방 '다독다독' 에서 만난 인연들

내 틀을 바꿀 책을 만나는 것, 내 경계를 넓혀줄 사람들과
잠시 쉬어가며 작은 목표를 끝까지 해내가 보라고 권하고 싶다.

무슨 책을 읽어야 하죠?

한국을 대표하는 아동문학가이자 교육자

특별한 규칙 없이 함께 읽고 나누며 보내는 시간

한 명의 작가가 평생을 쓴 글(작품)을 탐독한다는 것

최종 목표는 '글쓰기'

20년 넘게 어린이 문학을 즐기고
어린이 문학정신을 지켜가는
마을 서점 '책과 아이들' 에서
진행한 부모 강연 이후 만들어진 독서동아리

무슨 책을 읽어야 하죠?

6년 차에 접어든 지금, 고전이나 사회의 이슈를 다루는 책도 읽어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독서모임

작은도서관에서 함께 그림책을 읽어요!

1년에 한 번 새 기수를 모집해 활동을 이어간다.

엄마가 자기가 읽은 동화책을
똑같이 읽고, 자기가 한마디 했을 때
저도 한마디 톡 하면 아이가 별말은 안 해도
좋아하는 게 표정에서 보여요.

무슨 책을 읽어야 하죠?

어디서 모이나요?

작은도서관

독서는 소통을 위한 징검다리

도서관의 폐관이 동아리의 유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동아리의 활동을 도서관 운영의 영역까지 확장 시켰다는 점이 놀라웠다.

폐관 위기의 도서관을 구하다

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건물 2층에 있는 작은도서관

다운 어울림
(전북 전주-어울림도서관)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심사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 관계도 더 좋아졌다는 것이다.

어디서 모이나요?

작은도서관

사랑방 역할을 하는 도서관

도서관에서 동네 사랑방처럼
커피도 마시고 간식도 먹고,
웃고 울고 인생 상담도 해요.
삶의 공간 같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늘 드나들어서 회원 모집에 대한
어려움이나 목마름은 없어요.

15년째 운영되는 독서동아리

제주살이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독서동아리 덕분

<2020 청소년 책의 해>를 맞이하여
관련 주제를 선정

책여우
(제주-설문대어린이도서관)

어디서 모이나요?

도서관

토론보다는 듣기를 택했다!

연간 자료집 <책 읽는 어르신>을 큰 글씨책으로 만들어 자녀들에게 자랑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각자 독후감을 써서
낭독하는 시간으로
독서동아리를 함께 했다.

회원 중 한 명이 유명을 달리했고,
독서동아리에서는 이를 추모했다.

한겨레 공동기획 기사

석수시니어독서클럽(경기 안양)

어디서 모이나요?

도서관에서 나오다

『책과 바람나다』, 마다스북스 펴냄, 2020

그저 느끼고 생각이 이끄는 대로 했을 뿐. 활동할 수 있는 비법은 따로 없다.

회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
충실히 수행

광진정보도서관 독서회 2반으로 시작하여 협동조합 공간 책바람으로

책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럿이 함께한다는 뜻

책발함(서울 광진구)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내자!
동아리도 사회생활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같은 책 vs 다른 책

대부분 독서동아리들이 택하는 방법

돌아가면서 선정을 해도 좋고

베스트셀러, 사서 추천 도서, 도서관 분류표 따라 읽을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 함께한 독서동아리가 주로 택하는 방법

주제별, 작가별, 분야별로
개인의 독서 취향을 더욱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각자 원하는 책을 읽는 것이기에 간단한 책소개를 곁들여야 해요!

낭 독 vs 묵 독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요!
일정 대목을 함께 읽어요!
희곡 대본을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서로의 숨소리·말투·몸짓 등
비언어를 통해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시간,
함께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연대 의식을 느낄 수 있어요.
함께 있되, 각자의 시간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어떤 부분을 읽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색다른 매력이 될 수 있어요!

비대면(온라인)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매체(카카오톡, 줌-화상회의, 네이버밴드 등)
지역별 · 연령별에 따라 반응이 달라요!

비교적 온라인 매체에 노출 되어 익숙한 분들은 찬성!
새롭게 배워야 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잘 놓치는 분들은 반대!

2020년은 모두 새롭게 시도했던 해!

실수해도 괜찮아!

연습 시간이 답입니다!

수북수북

(대전)

하울링 현상, 소리 끊김이 자주 일어나...

독서동아리를 통해 지역 사회 주민에게 '책 읽는 즐거움' 을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만났다.

화면을 끄고 참가하겠다는
사람도 있어

우리 모임은 공동 운영자 두 명이 교대로 맡는다.
회원 중 지원자가 있으면 한 차례 씩 모임을 진행

매주 독후감을 써온다

정확한 언어를 구사

돌발상황이
독서동아리의
윤희제가
될 수도 있어

온라인 독서동아리?



40분 이내 무료(그 이상은 유료)

상대적으로 조작이 어렵다

오프라인(비대면)과 근접하다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소회의실, 화면 공유, 화이트 보드,
녹화, 채팅 파일 다운 등)

인터넷 환경을 신경 써야 한다.





채팅방의 # 기능을 이용하여
제비뽑기, 사다리타기, 포춘쿠키 등
소소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시간차가 발생하여
정리할 사람이 따로 필요하다

익숙하다 (언제, 어디든지 이용 가능!)

그룹콜(최대 10명), 라이브톡 기능을 통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밴드(BAND)가이드를 통해
업데이트된 기능을
손쉽게 알 수 있다.**



**실시간으로
꼭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다.**

**독서동아리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용이하다.**

**상대적으로
라이브 기능이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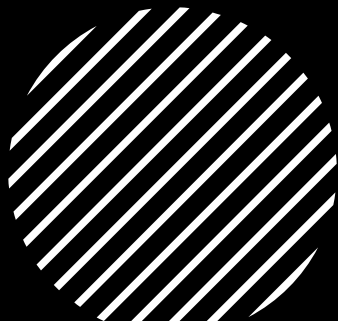
**밴드-관리 기능을 통해
회원들에게 다양한 역할을 배분할 수 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두 사람만 모여도 할 수 있는 독서동아리!
(책모임, 북클럽, 독서회.....)
할 수 있어요!

부담 없이 서로 배려하며 즐겨요!



더 많은 독서동아리
사례를 알고 싶다면?



독서동아리지원센터
readinggroup.or.kr

동아리 정보 – 동아리 소개

오늘 공유한 사례는 2018~2020년까지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만난 전국 독서동아리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취재에 응해주신 독서동아리 분들과

각 지역의 독서 활동가로서
수많은 역할을 해낸 길잡이와 취재단이 있어

이렇게 여러 사례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끝까지 함께 해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